

4년제 포장학과의 설립 위해 노력 경주할 터

한국포장학회 이근택 신임회장



이근택
한국포장학회 회장

(사)한국포장학회는 지난 7월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강릉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과학과 이근택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하였다.

한국포장학회 4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근택 회장은 “신임회장으로써 책임이 막중한 만큼 앞으로 2년 임기동안 포장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근택 신임회장에게 취임 소감 및 향후 학회 발전 계획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보았다.

- 편집자 주 -

“제가 전임 신동소, 김덕웅, 하영선 회장님을 거쳐 4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나 학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어깨가 여간 무겁지 않습니다. 앞으로 2년간 회장직이 감투라기보다 으뜸 일꾼 자리라는 생각으로 제 직분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한국포장학회 이근택 신임회장은 “올해로 한국포장학회가 발족한 지 14년이 된 만큼, 이제는 학회가 포장인들의 학문 연구와 기술 개발의 중심축으로서 제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포장학회에 대한 포장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단결을 부탁드립니다”고 취임소감을 대신했다.

이근택 회장은 1983년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식육포장에 대한 연구를 시작, 포장과의 인연을 맺게 된다.

포장관련연구 위해서는 업계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1987년부터 강릉대학교에서 식품포장학을 강의하면서 관련 연구와 산학협동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해 온 이 회장은 1990년부터 1년 반 동안 독일 후라운호퍼 식품포장연구소에서 '식품포장재의 안전성' 관련 연구를, 2006년부터 1년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플라스마를 이용한 포장재 표면의 기능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그는 연구경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식품포장재의 '허용물질목록' (안) 작성 등 안전성 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식육을 포함한 각종 식품의 포장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 왔다.

또한 한국식품과학회 포장분과위원장직을 역임했으며, 한국포장학회 설립 초창기부터 이사, 감사, 편집위원, 부위원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왔는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이근택 회장은 "그동안 포장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계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마인드를 기반으로 그동안 많은 포장업체를 방문하고, 포장기술인들과도 접촉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앞으로 2년간 한국포장학회를 이끌어 나갈 이근택 회장은 첫 번째로, 임기 내 무엇보다도 4년제 포장학과의 설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국내에서 포장 분야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관련 학과는 4년제 1개교와 2년제 3개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

따라서 국내 포장산업의 규모에 비하여 학계에서의 전문 인력의 양성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포장학과의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사회적 인식 부족과 대학 정원 조정 등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성과가 거의 나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포장 관련 학과 설치에 학회가 중심이 되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이 회장은 학회의 틀을 올바르게 세우고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학회의 가장 큰 역할과 사업은 학회지 발간과 심포지엄 등 학술 활동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포장학회에 속한 인적 인프라가 비록 취약하지만 최소한 포장학회지가 2년 후에는

산학협동체계구축 기반 마련 주력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학회지 발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 회장.

특히 그는 임기 동안 각종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을 통하여 되도록 포장산업과 학계가 공통 관심사를 발굴하고 산학협동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신명나는 포장학회가 되도록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학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회의나 학술 행사 참석을 위하여 상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모이면 서로 반갑고 유익한 자리가 펼쳐져야 합니다."

그는 "학회장으로서는 마치 오케스트라가 좋은 화음을 내 훌륭하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것과 같이 저의 재임 기간동안 즐겁고 유익한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가 공감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포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근택 회장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물적 유통되는 상품을 생각할 수 없는만큼 포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무엇보다도 포장 관련 제 단체의 통합 구심체가 이뤄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나 포장 관련 제 단체들은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포장학과 설립에 적극적인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학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때 한국포장학회가 포장기술을 전파하면서 포장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는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근택 회장.

한국포장학회, 나아가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이근택 신임회장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